“AI시대 승가상 정립 필요…교육부터 변화를”

조계종 승가교육 학술대회 잇달아
보일스님 ‘AI시대 승가교육’ 눈길
미래 출가자는 ‘디지털 네이티브’
조계종 교육원, 교과목 내실화도
교육아사리 역할 · 활용 방안 모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오늘과 내일’ 주제 학술대회에서 발제하는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도 승가도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승가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암)가 11월 16일 서울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주제발표 논문 ‘AI시대의 승가교육’에서 AI시대 필요한 승가상을 고찰하고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살폈다.

보일 스님은 앞으로 출가하는 미래 세대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지칭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미래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제시한 용어로,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 디지털 기술과 기기가 일상적인 삶을 이루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이 포교의 대상이자 출가의 대상이기에 AI시대에 요구되는 승가상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상으로 △다양한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통합적 시각을 지닌 사람 △종교 · 학문 · 예술 등 여러 영역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 △다양한 일상 문제를 성찰하고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꼽았다.

스님은 “4차 산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는 한문 경전 번역과 독해도 인공지능이 대신할지 모른다”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플랫폼이 다수에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관건을 많은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는 많은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경전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 아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일 스님은 AI시대 승가교육 변화의 키워드로 △커리큘럼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실에서 현장으로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등을 꼽았다.

기존 승가교육의 커리큘럼은 학생보다 교수사 중심이며, 정형화돼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기 어렵다는 게 스님의 지적이다. 스님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최적화하는 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불교 인재 양성의 방법이자 승가의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의 변화는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표준교과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과사전식 교과목 편성보다는 학인들이 불교의 기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11월 12일 열린 ‘2021년도 상주교수 연찬회’에서 교육원이 추진하는 사찰승가대학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원은 사찰승가대학 표준과정에서 필수교과목을 22과목서 20과목으로, 선택과목 27개를 15개로 줄인다. 한문불전은 그대로 존치하되 한글세대 학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편키로 했다. ‘불교개론’을 통해서는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불교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교과목 학점은 기존 102학점에서 81학점으로 줄었지만, 수행교과와 수행실수, 자원봉사의 학점을 높여 사중 수행과 봉사활동에 비중을 높였다.

서봉 스님은 “표준교과과정이 확정되면 2022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사찰승가대학 교과과정에 승가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는 교과목을 제대로 편성한다면 학인들은 역사와 사회를 이끌 미래 승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자인 교육아사리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15일 교육아사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은 ‘교육아사리 10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그간 교수아사리 활동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갈 종책 방향에서 제언했다. 무애 스님은 앞으로 교수아사리의 활동 방향에서 대해 △연구 대상 스펙트럼 확장 △자생적 연구활동 인프라 구축 △사찰 현장과 학문의 연계 △불교 원전어 확충 등을 제언했다.

무애 스님은 “개인적으로 서지학 · 문헌학적 연구가 학문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회향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불교의 목적과 부합되는 ‘괴로움을 없애주는(離苦得樂)’ 학문 연구로 스펙트럼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육아사리를 승가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어가 확대돼야 함을 제안했다. 스님은 “원전어에 대한 불전언어를 확립한 교육아사리들이 사찰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안정적 상태에서 다국적 불전을 연마하는 것이 학문 일변도의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사 보물 불상 ‘발원문’ 사라졌다

주지 인수인계서 확인해
종단 · 문화재청 유실신고
“유통 못 되도록 최선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중 발원문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재안)에 따르면 보물로 지정된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불상과 복장유물을 조사하던 중 소조가섭존자 입상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 조계종과 문화재 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10월 동국사는 주지 인수인계를 위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 유물 조사를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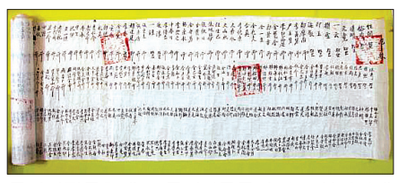
군산시 역시 발원문의 유실을 확인하고 수장고를 점검했지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국사는 조계종 총무원에 발원문 유실에 대해 신고했으며, 군산시도 문화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화재청은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 재안 스님은 “주지로 취임한 뒤 동국사 소장 성보에 대한 조사를 종단 측에 요청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발원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발원문 유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사 등은 분실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동국사에게 대여를 받아 해당 유물들을 전시하고 12월 인계했으며, 그해 12월에도 군산시가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서를 펴냈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유실에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에 통해 문화재청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동국사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유실 가능성 높지만 조계종 측은 도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중 발원문. 동국사는 주지 인수인계 과정서 소장 문화재를 조사하던 도중 소조가섭존자입상 발원문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 조계종과 문화재 당국에 신고했다.

원법사장학회, 직접 만든 유과 판매로 학생들 지원

11월 18일 동국대 서울캠과 약정식
1000만원 희사…10년간 1억원 후원



원법사장학회(이사장 해운)가 경북 출신 동국대 서울캠퍼스 재학생들에게 10년 간 1억원을 후원하며 동국대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8일 서울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법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사진〉 원법사장학회는 이날 포항과 영천, 영덕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1억 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원법사장학회는 포항 원법사 소속 장학회다. 2008년부터 지역 초 ·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470여 명에게 2억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경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활동을 펼쳤으며 서울캠퍼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기금 수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원법사장학회 장학금은 원법사 신도들이 직접 만든 유과를 판매해 생긴 수익금이 포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사장 해운 스님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2015년 졸업생으로, 그동안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이 나라와 불교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 LH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선 MOU

11월 17일 업무협약 체결
시설 · 심리 치료 지원키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의 시설 개선과 시설 이용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조계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힘을 합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LH는 남양주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의 지층 공간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10년 간 무상 제공하고 시설 개선과 심리 상담 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이웃을 살피는 일에 힘쓰고 있다”며 “LH 측에서 제공한 혜택으로 피해 아동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17일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재단과 협의해 추가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학대로 상처입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일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금우당 인각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정총림수좌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내신 금우당 인각 대종사께서 지난 11월 11일 새벽에 범어사 금어선원 청풍당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영결식과 다비를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인각 대종사 장례에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신심과 수행정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참구하라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저희도 더욱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인각 대종사 추모일정(49재) 안내

초재(범어사 보제루)	11월 17일 (음 10월 13일) 수 오전 10:30
2재 (범어사 보제루)	11월 24일 (음 10월 20일) 수 오전 10:30
3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1일 (음 10월 27일) 수 오전 10:30
4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8일 (음 11월 5일) 수 오전 10:30
5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15일 (음 11월 12일) 수 오전 10:30
6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22일 (음 11월 19일) 수 오전 10:30
7재 (범어사 보제루)	12월 29일 (음 11월 26일) 수 오전 10:30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문의 : 051-508-3636

불기 2565(2021)년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금정총림 범어사 · 문도 일동